

건설기계 파업에 장마까지...광주 공사 현장

엔진 끈 중장비...곳곳 물웅덩이만

장비 널브러진 채 파행 공사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건설기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지 8일째인 23일 오후 광주시 북구 연제동 광주첨단산단 2단계 개발사업 현장. 덤프트럭의 엔진소리로, 굴삭기의 굉음도 들리지 않았다.

흙 쌓기 공사가 한창이어야 할 206만1천㎡의 공사 현장에는 25t 덤프트럭 3대와 굴삭기 2대, 불도저 1대, 로드 롤러(road roller·도로의 면을 고르거나 다지는 중장비) 1대가 멈춰서 있었다.

장맛비에 젖은 중장비는 시뮬경계 녹이 슬고 있었다. 공사 현장 곳곳에는 장맛비에 지름 4~5m의 진흙탕을 이룬 웅덩이가 생겼고, 흙 쌓기 작업

을 하다 만 3~4m의 토성에는 빗물의 흐름에 따라 깊이 20~30cm의 물이 형성돼 있었다.

그나마 하수처리 설치공사가 필요한 레미콘과 철근을 실어나르는 14t 화물차가 간혹 들락거려 이곳이 공사 현장이라는 것을 짐작케 했다. 파업 후 내부 토사를 운반할 각종 건설기계가 멈춰서자 인력작업이 가능한 하수처리 설치공사를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 광(光) 산업과 디지털 가전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할 첨단산단 2단계공사(사업비 3천524억원)는 지난해 9월 착공했다. 현재 공정률은 5%로, 오는 201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기계노조 파업으로 건설기계 운행이 중단되고 장마철까지 겹치면서 일부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발주처인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오는 25일 건설기계노조 측과 1차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장마철까지 겹쳐 갈 길이 멀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우선 덤프트럭 등이 필요없는 5곳의 교각 설치공사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광주시 남구 노대동 효천택지조성지구 현장. 배수로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는 1.5m 높이의 토사가 쌓여 있었다. 25t 덤프트럭과 굴삭기가 지난 16일 건설기계노조의 파업으로 운행이 중단되면서 배수로 공사과정에서 나온 토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 배수관 나무

들이 쓰러져 있는 발목현장에는 일부들이 쓰러진 휴대용 벌목 톱과 장화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광주효천택지조성 현장 관계자는 "건설기계노조의 파업으로 공사가 늦어지는데다 설상가상으로 장마철까지 겹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파업이 끝나면 공사일정을 맞추기 위해 야근을 밥먹듯이 해야 할 것 같다"고 걱정했다.

한편 건설기계노조는 지난 16일 '표준임대차 계약서 도입'과 '운송단가 현실화'를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했으며, 건설기계노조 광주·전남지부에서는 덤프와 레미콘, 굴삭기 조합원 1천500여명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건설기계노조 파업 8일째인 23일 광주시 북구 연제동 광주첨단산단 2단계 공사 현장에 중장비들이 가동을 중단한 채 멈춰서 있다. /나영주기자 mjna@

“훗김 이혼 참고 3개월뒤 다시 봄시다”

‘이혼숙려제’ 시행...광주지법 20건 첫 적용

훗김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숙고기간을 두는 ‘이혼숙려제’가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또한, 협의이혼 때 미성년 자녀양육 문제에 대한 합의도 이날부터 의무화되는 등 협의이혼 절차가 크게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날 광주지법에 접수

된 이혼신청 20건부터 새로운 협의이혼 제도가 적용돼 미성년 자녀가 있는 12건은 3개월간의 숙려기간이 적용되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8건은 1개월간의 숙려기간이 적용된다.

22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협의이혼 절차에 관한 개정 민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협의이혼 절차가 크게 바뀌고 안내·숙려기간·상담 권고 제도가 신설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협의이혼을 법원에 신청한 부부는 미성년 자녀(임신 중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단 가정폭력 등 부부 한쪽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

우 법원은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또 이혼에 앞서 ▲자녀 양육권자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협의서를 제출해야만 협의이혼이 가능해진다.

협의서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려 수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최권일기자 cki@

집단 수업거부 여상고

“지나친 체벌 있었다”

광주시교육청 확인

여고생들의 집단 수업거부로 말발이 일었던 광주 S여상에서 도를 넘어선 체벌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은 23일 “학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 뒤 두차례 정밀 감사를 실시한 여고생에 대한 체벌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모 보직 교사가 수련회 과정에서 술을 반입한 여고생 6명의 뒷덜미와 얼굴 등을 한두차례 손으로 때렸으며 당시 이 교사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또 “평소 차용 규정을 위반한 학생들로부터 압수한 반지, 목걸이 등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반지를 분실, 학교 측이 47만원을 변상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짧은 치마 길이에

대한 단속 등은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성추행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음주 및 체벌교사에 대한 엄중경고와 보직해임, 교장 등 학교 관리자 경고, 생활규정 위반 학생에 대한 적정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학교 측에 요구했으며 학생생활지도 개선 대책 마련과 학생생활지도 담당 교원 연수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태 뒤 학교 측은 ▲학생인권 존중 ▲물의 교사 보직해임 ▲강제 보충수업 중단 ▲학교생활규정 개정 등을 약속했다.

광주 S여상 학생들은 지난 16일 학교 측이 체벌, 강제 보충수업 등 과도한 학생지도를 하고 있다며 수업을 거부하는 등 반발해 파문이 일었다.

/정필성기자 camus@kwangju.co.kr



육군 하사 투신 자살, 집단 괴롭힘 때문

3명 구속영장 신청

22일 광주에서 발생한 육군 모 부대 김모(22) 하사의 투신 자살은 선임 하사와 사병들의 ‘집단 괴롭힘’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이에 따라 집단 괴롭힘에 가담한 A, B 두 하사와 C 상병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대장 등 부대 책임자들을 의법 처치키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육군 2군단 헌병대는 23일 김 하사의 시신이 안치

된 함평군에 있는 육군통합병원에서 유족들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헌병대에 따르면 강원도에 있는 2군단 산하 모 사단 소속인 A 하사 등은 지난해 6월 부대에 배치된 김 하사를 상대로 폭언과 욕설 등 인격적인 모욕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C 상병의 혐의는 군 형법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된 ‘상관 면전 모욕’에 해당한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이정섭 담양군수

검찰 소환 조사

광주지검 특수부는 23일 오후 1시께 이정섭 담양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군 공무원의 승진 또는 채용 인사의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특히 이미 구속된 이 군수의 형(75)과 아들(36)이 인사청탁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이 군수가 알고 있었는지, 이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썼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정섭 군수를 잘 알고 있다. 군수에게 말해 관급자제 계약을 수수하게 해주겠다”며 업무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김모(66)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화물차 운행 방해 노조원

차로 친 40대 검거 조사

영암경찰서는 23일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원을 자신의 차량으로 친 양모(45)씨를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이날 오후 7시께 영암 대불공단 내 철강회사인 H 스틸 정문 앞에서 자신의 트레일러에 계란을 던지며 운송을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원들에게 차량을 돌진시켜 서모(42)씨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 등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씨의 차량을 방해하고 파손한 화물연대 노조원들을 상대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CC (주)금복시스템, featuring text about individual and apartment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짚질방서 면도칼로 속옷 찢고 성추행



○40대 남성이 짚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고생의 속옷을 면도칼로 찢고 몸을 더듬다가 경찰에 붙잡혀 철창행.

○광주광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모(46)씨는 지난 22일 새벽 5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O 짚질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여고생 김모(18)양을 성추행했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미리 준비한 면도칼로 김양의 반바지 엉덩이 부위를 10cm가량 찢은 뒤 속옷까지 찢고 몸을 더듬었으며, 잠에서 깬 김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이씨를 검거했다고.

○이씨는 조사과정에서 지난 4월께 이 짚질방에서 같은 수법으로 못된 짓을 저지른 것까지 드러나 경찰은 이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호남 최고(39)층 명품아파트 구역지정 확정' (Honam Best 39-story Premium Apartment Area Designation Confirmed) with images of modern building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임동 유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